

특집

□ OPEC 原油價格
인하 이후 □

OPEC의 神話는 끝났는가?

~역할 변화와 전망~

金秀培

〈韓國經濟新聞·外信部次長〉

I. 守勢에 몰린 OPEC

OPEC는 지난 1월 30일 사상 두번째로 油價
引下를 단행했다. 지난 83년초 基準油(사우
디 輕質油) 가격을 배럴당 5달러 인하했던 OPE
C는 이번에 다시 이를 1달러 낮춘 28달러로 결정
한 것이다.

그동안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어려웠
던 油種間 가격차도 작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결정
된 격차 3.75달러를 2.4달러로 축소했다. 수요가
많은 重質油는 26.5달러선에서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유황분이 적게 함유된 輕質油는 정유가공이 손
쉽기 때문에 重質油보다 최고 4달러 정도 비싸게
가격이 책정돼 있었으나 최근 석유 輸入國들은 정
유공장 시설을 개선, 값싼 중질유를 도입해 경질유
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유해내고 있다. 이에 중질유
수요가 경질유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수요가 줄
어든 경질유는 현물시장에서 公示價格보다 2~3
달러 낮은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경
질유를 생산해내는 알제리, 리비아, 이란 등은 중질
유가격을 上向조정해서 OPEC원유의 가격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질유를 많이 생산하는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해왔
다.

OPEC油價의 추가인하와 油種間 가격조정은 공
급과잉하의 석유시장 동향에서 볼 때 벌써부터 예
상되어온 조치지만 회원국간의 利害對立으로 인한
OPEC통제기능의 弱化和 非OPEC 산유국의 공급
능력증대 및 소비국의 산업구조변화, 유류절약에 따
른 수요감퇴는 유가의 추가인하에 큰 압력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을 낱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살펴본
다면 이번 OPEC결정도 油價의 하락경향을 능동
적으로 막아보려는 OPEC의 自救的 노력의 일단으
로 간주될 수 있다.

油價하락요인 아직도

앞으로도 OPEC油價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은 공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유류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83년 西方世界

의 석유수요는 하루 4,520만배럴이었고 84년에는 110만배럴이 늘었을 뿐이다. 수요증가분의 대부분은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 蘇聯, 中共 등 非OPEC 산유국들이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세계시장에서의 OPEC원유의 시장점유율은 피크에 달했던 79년의 67%에서 84년에는 40.6%로 떨어지고 85년에는 30%대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가재정의 약 90%를 石油收入에 의존하고 있는 OPEC회원국들은 收入減少分을 메우기 위해 OPEC에서 합의된 국가별 생산량이상을 증산하여 다량을 公示價 이하의 가격으로 현물시장에 팔아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公示價에 의한 석유거래는 英國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 의하면 수출량의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현물시장과 물물교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公示價에 구매받지 않는 이같은 덤핑거래는 OPEC의 油價결정기능을 空洞化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의 OPEC의 油價引下 및 油種間 가격차 조정에서 보듯,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유가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월의 OPEC의 결정 역시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非OPEC산유국들의 增産이 制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OPEC회원국들이 회원국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도 그것이 OPEC 각국의 증산과 덤핑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러나 OPEC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非OPEC 산유국들에 대한 판매경쟁을 높이는 한편 가격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회원국간의 不和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PEC가 부분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한 것은 OPEC영향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가격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폭이 현물시장의 實勢(27~27.5달러)에 아직도 못미

치고 있는데다 일부 회원국들이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어 OPEC油價는 앞으로의 市況에 따라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OPEC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과잉으로 계속적인 油價引下 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은 OPEC내부의 가격구조 불균형문제를 노출시켜 회원국간에 이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공공연히 노출됐다. 이번의 추가인하 결정에 알제리, 이란, 리비아등이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OPEC의 均열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서 앞으로의 OPEC油價동향에 큰 변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OPEC는 세계석유시장 장악기구로서 70년대와 같이 강력한 기능은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번 제네바회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OPEC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지렛대는 산유량 조절인데 이미 OPEC는 작년 3월 하루 생산량을 1,750만배럴로 줄인데 이어 10월말에는 다시 1,600만배럴로 減産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도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금년 1월에 들어와 1,400만배럴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OPEC가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국제경쟁력에서 守勢에 몰리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II. 회원국들의 財政難

오늘날 OPEC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돼온 油價不安의 영향으로 인플레이, 失業 확대, 腐敗만연, 政治不安등을 징후군으로 하는 새로운 「石油病」이 만연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石油富國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대규모 공업화 및 공공사업을 벌여놓았으나 국가재정의 80%를 차지하는 石油收入의 감소로 예산을 30억 달러나 축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했다. 최근에는 설탕, 우유등 생필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유가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라고 진단한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석유수출이 80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그렇다고 석유수출 부진을 상쇄시킬만한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할 처지도 아니

다.

에콰도르에서는 최근 휘발유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는 총 51억달러 상당의 5대사업 프로젝트가 연기됐다. 최대 富國인 사우디 아라비아 조차도 건설공사 대금 지불을 미루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外債 때문에 石油收入의 79%를 외채상환에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투자에 손을 쓸 겨를이 없다. 정치불안과 인플레이션은 고조되고 근대화노력은 막대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인하되는 경우 베네수엘라의 연간 財政收入은 4억 7,000만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이제 대다수 OPEC국가들에 있어 예산과 國際收支 적자는 연례적인 것이 되고 있다. 많은 산유국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OPEC 13개 회원국중 8개국은 82년에 純채무국이 됐고 이 채무는 증대일로에 있다. 이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세계는 또 한차례 금융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사우디 아라비아 조차도 1,000억달러의 外貨를 현재와 같은 추세로引出해 쓴다면 86년말경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고 中東뉴스레터지 편집장 사이먼 헨더슨은 관측하고 있다.

O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멕시코 또한 심각한 財政難을 겪고 있다. 외채부담으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멕시코는 석유수출 감소로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몰려있다. 우선 1차로 강력한 輸入억제조치를 취해 연간 240억달러에 달하던 수입액을 8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그밖에 대규모 開發事業을 집중적으로 무기연기하는 한편 적은 투자로 外貨收入을 늘릴 수 있는 관광사업등에 정부재정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일부 產油國은 貧國으로

이 와중에 길고 지루한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이란·이라크는 아예 國家財政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한때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한답시고 꿈에 부풀었던 이란은 전쟁개시 4년만에 외환보유고가 겨우 3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80년대초 外換保有高가 360억달러를 상회하던 것에 비하면 이란정부의

재정상태가 한계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라크는 이란식 回敎革命的 波高를 경계한 中東국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정위기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美國정부도 이라크產 농작물을 수입해 주는 등 이라크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에는 여전히 力不足이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로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란은 自救策으로 석유를 할인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공급과잉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놓았을 뿐, 판매이익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란은 내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인 새로운 送油管을 최대도 활용하여 일단 판매량을 50만배럴 가량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석유시장의 가격질서만 붕괴시켜 OPEC의 통제력만 약화시켜 놓을 公算이 크다고 하겠다.

페르시아灣의 석유富國 쿠웨이트의 경우도 문제는 심각하다. 쿠웨이트정부 관리들은 쿠웨이트경제가 공공지출 축소 및 석유收入증대 없이는 3년내에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원유생산 쿼터감축 협정에서 다른 OPEC회원국들보다 과다하게 쿼터를 감축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심한 곤경에 처해 있다.

지난 3년 사이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수출收入은 연간 1,0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호텔, 공공사업을 대폭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輸入代金 및 채무의 상당부분을 현물(원유)로 결제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 총 外貨保有高 1,000억달러 가운데 무려 250억달러가 변제가가능성이 희박한 이라크에 대출돼 있는 사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같은 재정 곤란 때문에 더 이상 감축된 쿼터를 준수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쿼터과기는 OPEC내 빈곤회원국들에게는 이란·이라크戰보다 더 가공할 사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Ⅲ. OPEC의 장래

OPEC의 장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복잡다기하다. 그러나 OPEC가 적어도 오는 90년까지는 어려운 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90년 이후에는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油價는 불가피하게 상승할 것으로 짐치는 전문가들도 많다.

OPEC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겠지만 OPEC라는 카르텔은 비록 불안정한 상태에서나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OPEC를 포함한 모든 카르텔은 높은 가격 대신 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供給은 통제할 수 있어도 수요는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OPEC의 생산시설은 오늘날 많은 부분이 休止化되고 있다. 그것은 OPEC의 高油價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OPEC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인 것만은 틀림없다. 때문에 油價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석유공급과동이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것은 OPEC가 존속하는한 석유수입국들이 끊임없이 겪어야할 불안인 것이다.

석유수입국들은 석유가 생산이 유한한 非再生産 자원이기 때문에 카르텔이 없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 油價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또 2,000년대에 가면 OPEC회원국들의 국내석유수요가 증가해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정관념은 활발한 代替에너지개발로 점차 흐려져가고 있다. 또한 석유매장량이란 것도 아르헨티나에서 보듯 개발해낸만큼 새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매장량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天然가스를 보다 싼 가격으로 개발해낼 수 있다면 석유수요를 그만큼 줄이게 될 것이다. 非OPEC산유국들의 석유 및 天然가스 생산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란·이라크전쟁이 양국경제의 파탄으로 멀지않아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두나라의 산유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戰災복구를 위해 현재 하루 400만배럴 수준에도 못미치는 산유량을 과거의 수준인 1,000만배럴 이상으로 늘려야할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OPEC의 산유량 통제능력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려질 것이다.

內紛요인은 상존

OPEC는 현재 13개 회원국 모두에 산유권력을 부과함으로써 貧富를 가리지 않고 회원국 모두가 減産에 조금씩 참여케하는 均등희생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같은 생산통제방식은 高油價유지를 가능케 해주고 있으나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약점을 지닌다. 약소회원국들은 자기나라가 쿼터를 어기고 생산량을 다소 늘려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해도 大産油國들이 그 분량만큼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때 大産油國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카르텔은 붕괴되기 때문이다.

OPEC 내에서는 이같은 大産油國 역할을 사우디 아라비아가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로서도 産油量 감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우디는 다른 회원국들이 계속 속임수를 쓸 경우 아예 가격인하전쟁을 벌여 다른 나라들의 마켓셰어를 빼앗아 올 수도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사우디는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大規模 油田을 많이 갖고 있어 일단 가격전쟁이 벌어지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카르텔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상상해 볼 수 있는 假定에 불과하다. OPEC 내에서 싸움결과 협상, 위협과 반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OPEC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OPEC의 內紛현상은 석유수요가 증가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수요증가가 오히려 가격인하를 부채질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수요증가가 油價引下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물론 지난 84년 여름 石油수요가 늘어났을 때도 이같은 현

상이 빛어졌다. 그것은 수요증가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 실제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內紛의 소치에도 불구하고 OPEC는 위기때마다 만만치않은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 카르텔은 흔히 정부 뒤에 숨어 일하기 때문에 많은 制約을 받는다. 그러나 OPEC는 회원이 主權國家들이고 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제적인 독점금지법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先進소비국도 OPEC의 안정바라

심지어는 소비국들까지도 OPEC에 협력하고 있다. OPEC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OPEC의 石油收入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구매력이 저하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中東에 건설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석유收入 감소가 건설공사위축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油價가 다소 높더라도 그들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美國은 정치적 이유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들이 제정파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美國은 OPEC油價가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油價支持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기까지 하다.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세계석유시장은 지난 70년대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油價가 續落하면

英國, 노르웨이, 美國 등 원유생산單價가 상대적으로 높은 非OPEC산유국들의 생산량이 감소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될 경우 OPEC산유국들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석유전문가들은 만일 OPEC라는 카르텔이 없었다면 유가는 더욱 변동이 심했을 것이며 따라서 세계경제에도 더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지금까지 OPEC가 카르텔로서 보여온 횡포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질서 유지에 적지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몇차례의 분열위기를 넘기면서 24년간 지속되어 온 OPEC카르텔은 회원국들의 정치·경제·종족·종교등의 배경이 異質的인데다 매장량이 많은 사우디등 페르시아灣 온건파 회원국들과 그렇지 못한 이란등 강경파의 利害對立으로 내분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제석유시장의 공급과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PEC회원국들은 예상밖의 단결력을 과시, 대부분이 협정가격을 지키고 생산쿼터를 고수함으로써 석유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아직도 석유시장은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이 모든 要因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외로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石油수요의 점차적인 증가, OPEC회원국들의 경제규모 축소조정, 시장안정을 위한 회원국간의 단결의욕 등은 예상보다 빨리 OPEC의 본래기능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른다.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